

크리스천 청년들의 영적 부흥 위한 대축제

2012 606 전국 기독교청년들 잠실실내체육관으로 모여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이재훈 목사 강사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 운동과 예배 회복의 장이 될 2012 606 전국청년부흥대성회가 6월 6일 오후 12시부터 17시30분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매년 'The Holy Spirit'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던 본 성회는 올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찬양을 통한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최된다.

전국청년부흥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1부 열정, 2부 변화, 3부 거룩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강사로는 조용기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재훈목사 (은누리 교회 담임목사)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며, 오프닝 공연으로 CCM Artist 송정미

와 헤리티지 미니스트리의 찬양이 준비됐고, 팀조슈아, 어노인팅, 마커스워십이 순서별로 찬양을 인도한다.

올해 7년째 맞이하는 기독교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대축제는 한국교회의 차세대인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 운동과 예배 회복의 기회를 만들고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더 다음세대를 향한 부흥과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

성회 주최 측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도 운동과 성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사를 통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의 차세대인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번 성회는 특히 청소년부터 대학생,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며 잃었던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아뢰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만들어지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운동이요 축제이다.

이번 성회는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으로 구성된 400여명의 파이어가 성회 내내 은혜로운 찬양

으로 성령의 불을 지필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성회에 참석한 청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행부 부를 비롯해 10개 분과별(위생분과, 홍보분과, 섭외분과, 의료분과, 홍보분과, 영상분과, 언론분과, 음악분과, 예배분과, 안내분과)로 1,000여명의 인원이 봉사자로 투입되어 진정으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행본부측은 "지난 6년간 성회를 준비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성회에도 차질 없이 준비된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는 청년들의 참여인 만큼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성회의 진행과정을 알리며 성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보이며 적극적인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성회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5,000원 이상 후원자는 기념 티셔츠와 브로셔를 증정한다. 참가 신청은 각교회(www.godpeople.com), 성회 홈페이지(www.theholyspirit.co.kr)에서 하면 된다.

사설

교사를 스승으로 할 수 있는 길

옛말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하여 선생님을 나라의 임금과 같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기억한다. 오늘날 교사의 위상은 말이 아니다. 며칠 전 신문에 반장 안시켜줬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은 강원도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모습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교실 뒤에 10여분을 서있게 하겠다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교무실로 찾아와 그 선생님을 만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아무도 없는 특별활동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들고 있던 건 우산으로 교사를 때렸다는 일이며, 사소한 일로 교사에게 항의하거나 교육청 심지어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는 협박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생각해 보자 그 교사에게도 부모가 있고 혹은 자녀가 있을 진대 어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당국이나 나라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이든지, 때문에 교사는 여전히 제대로 교사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학교 교사보다 학원의 강사를 더 두려워하고 학교의 성적보다 학원의 수업평가를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실제로 모 학부모는 '학원에서 공부해야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 '우리 애 지독히 말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를 돌보아달라고 교사를 쉽게 여겨며 학교의 수업을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공권력을 무시하게 되면 경찰의 힘이 약해져 사회의 질서를 잡기에 어려운 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권을 우습게 여겨 교사의 위상에 치명상을 주는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사와 제자들의 관계에 치명상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학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 '교사를 저지' 하는 직업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한탄하는 모교장의 말을 들어 본다.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서도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볼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하나 또는 둘 밖에 없기에 내 자녀 소중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지 말라는 법 없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지도가 적극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의 교권을 확립하며 교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학교에 학업을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한 마디로 학원을 없애야 한다. 학교 교사를 중히 여기고 부모와 같이 임금과 같이 여길 수도 하려면 학교에서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국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 학부모들의 학교 간섭을 엄하게 규제하여 교사들의 부모와 같은 심령과 헌신과 봉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가정에서는 학교 탓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정 탓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니 말씀 중심한 기독교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교권을 세워나가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을 봉양장이 아닌 스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웨신총회와 웨신대 협력발전 위한 간담회 가져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목회자 재교육과 총동문의 회동을 추진키로



성흥목사
총회장
수원순교교회

웨신총회 성흥목사 총회장과 수원순교교회 원 대학교에서 한 동속 이사장, 박영선 총장, 기획처장 김성

목 교수, 웨신선교회 총무 박우재 교수 등이 모여 학교와 총회, 총회와 학교 간 향후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무 신언창 목사는 총회임원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총회와 학교간의 벌어진 간격이 해소되고 상호간 협력하며 함께 상생발전시키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향후 쌍방 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표준의 학교와 총회로 발전시키자고 모두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목회자 재교육

을 통하여 한국교계에 봉사하고 교단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회대학원을 운영하되 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총회와 학교 간 협약 문 시안을 검토하고 이를 법률자문단에 의뢰하여 다듬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중하여 체결키로 하였다.

최근에 웨신총회에 강도사 고시를 청원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총회 차원 강도사 고시 추가 특별 전형을 실시하여 오는 6월 1일 학교에서 총회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홈페이지

바로그가기를 설정하고 학교채플에 교단 목회자들의 강단교류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지급이나 발전기금 후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또한 6월 총회 전국 교역자 하계 수련회에서 웨신대학 교수를 초청 특강을 갖는 등 앞으로 학교와 총회 간 자전적 협동과 실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에 학교차원에서 발족한 웨신선교회의 취지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기획처장 김성목 교수의 설명을 들은 후 앞으로 웨신선교회 내에 웨신 총동문을 규합하고 통합시켜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고 학생들의 총회진로나 안수 절차 지도를 위하여 웨신선교회 내에 교단창구를 웨신선교회 총무 박우재 교수가 맡아 전담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웨신선교회가 향후 웨신총동문들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는 구심력이 되어서 학교발전에도 기여하고 재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특별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날 원치 않았던 일로 인하여 총회와 학교간의 파열로 인해 깊게 파여진 교감을 매우 깊게 드러워진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를 걷어내어 순전함과 착한 마음에 기초하여 학교와 교단을 사랑하고 아끼며 키워가기를 다짐하면서 개혁주의에 기초한 보수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결실하자는 한동속 이사장의 축복기도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오찬을 마친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웨신총회와 웨신대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양측은 사랑과 축복으로 덕담을 나누었다.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1년 1월	2011년 4월
1/1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통탄사랑의교회(이주환 목사)	7-9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 한일산기도원(이영진 원장)	10-12 정기노회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2-14 장전교회(이영진 목사)
13 김리교단 제직세미나	17 장전교회(유택진 목사)
16-19 성마를교회(권동희 목사)	18-20 내국교회(함형민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갈장로교회(이영진 목사)
24-7 갈렘산기도원(이국원 원장)	
2011년 2월	2011년 5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2-4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9-12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9 숭산반석교회(김영진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18 동대문교회(홍우일 목사)
14-17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4-25 담양주교교구연합성회(최정호 목사)
20 한강중앙교회(최정호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희선교구원회)
21-23 미수교회(전종구 목사)	
24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2011년 6월
7-10 성서교회(박재영 목사)	6-8 소망교회(이종찬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13-17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0-22 생령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2011년 8월
4-6 새영교회(이영진 목사)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5 한일산기도원(이영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18 장전교회(이국원 원장)
25-27 원주백영교회(김정호 목사)	22-25 장전교회(최정호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2011년 10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회협의회(이기호 총재)	3-5 양주 비전교회(김환철 목사)
12-15 동문합동교회(전용 목사)	10-12 신년 피제리독교단연합성회(박건일 회장)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3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19-22 교단총회	17-19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4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3-26 장전교회(최정호 원장)
26-28 성은교회(김종수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렘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동교회(김성우 목사)
2011년 11월	2011년 12월
3 베데스다기도원(허영환 원장)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반석교회(이종환 목사)	3-5 양주 비전교회(김환철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전영환 목사)	10-12 신년 피제리독교단연합성회(박건일 회장)
17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1-24 주안성결교회(전영환 목사)	17-19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3-26 장전교회(최정호 원장)
28-30 새영교회(김정호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011년 12월	2012년 1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2-4 천성교회(김영목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근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원 원장)
12-16 이도 성교회	9-11 온일교회(최태성 목사)
19-22 주안성결교회(전영환 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진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신성교회(정대호)
26-28 반석교회(이종환 목사)	19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12년 2월	2012년 3월
6-9 갈렘산기도원(이영진 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영진 목사)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 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근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9-22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13-15 신갈장로교회(이영진 목사)	27-29 중평중앙교회(고영철 목사)
2012년 4월	2012년 5월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2-4 하예성교회(강대중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5-6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012년 6월	2012년 7월
3-6 주안성결교회(전영환 목사)	2-5 사명자영성회(송요섭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한일산기도원(최정호 원장)
2012년 8월	2012년 9월
8-10 한일산기도원(이영진 원장)	3-6 은누리연합수련회(이기호 총재)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0-23 갈렘산기도원(이국원 원장)	17-20 교단 총회
27-30 성산수양관(윤호근 원장)	24-26 성결교회(이국원 목사)
2012년 10월	2012년 11월
7-9 평강중앙교회(김동원 목사)	11-13 성서교회(박재영 목사)
15-16 장전교회	19-21 경천교회(이영진 목사)
22-25 장전교회(송대규 목사)	26-28 예수마침교회(이승업 목사)
29-9/1 성지순례	
2012년 12월	2013년 1월
3-5 임마누엘교회(정태일 목사)	11-14 성서교회(박재영 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 목사)	19-21 경천교회(이영진 목사)
17-21 팔리핀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예장합동 설립 100주년 기념 전국목사장로대회 개막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전국 목사·장로 7천여명 참석 14일 ~ 16일까지 개최

한국 장로교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목사장로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00년의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과 새로운 100년의 새 출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전국목사장로대회(준비위원장 오정현 목사)를 '100년의 은혜감사, 100년의 비전비상'이란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에서 개막을 시작했다.

제49회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예장합동의 전국 목사·장로 7천여명이 참석, 교단의 미래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이번 대회는 '100년의 은혜 감사, 100년의 비전비상'이란 주제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작과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대회사에서 "이 대회는 은혜의 백년이며 천국시민의 새로운 출발이다. 100주년 이 기념대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의 대화가 있는 성회가 되어서 미래로 비상하는 100년을 준비하고 민족 통일의 원년 대업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회 준비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14일 오후 수영로교회 본관에서

(직전 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첫날 참석자들은 개회예배 후 첫 번째 특강으로 브라이언 채플 총장(카버넬트신학교)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오페라 <손양원> 공연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집회 특강강사로는 브라이언채플 총장(미 카버넬트신학교), 피터틸백 총장(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이영 교수(이화여대 명예), 박용규 교수(총신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섹션별 강연에는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 허문영 박사(KBS해설위원),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를 비롯한 22명의 강사가 참여한다.

한편 기념대회에서는 총회 100주년 선언문과 제10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개최와 관련해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을 부인하고 변질된 성경론을 주장한 WCC 개최를 반대하며 잘못된 구원론과 교회론에 빠져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열린 기자회견에서 "7천 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인 것은 장로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교단의 향후 100년을 위해 국제적으로, 교단적으로 특정 부류가 아닌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예배는 기도 소강석 목사(새에덴), 성경봉독 이성택 목사(서현), 설교 이기창 목사, 축사 허남식 부산시장, 광고 장병생 목사(진행위원장), 축도 김삼봉 목사

표하는 시간도 가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가족 환경 가구 만들기' 지도 교사는 차경진씨로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시를 하였고, 현재는 한국 조각 작가 협회, 부평구 미술 장식품 심사위원, 인천 미술협회 이사, 인천 조형작가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덕원 예교 출강중이다. 네이버 블로그 'ddolai'에 접속해보면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친 불교단체에 종교차별 실태조사 맡겨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종교차별 인권침해조사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불교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공동대표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종자연과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국가,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종자연은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가 이끌 있는 단체다. 종자연은 그동안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종교편향 논란을 제기해온 단체다. 종자연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불헌 발언을 비롯한 기독교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종교편향 논란을 제기해 왔다.

종자연 홈페이지에 의하면 현재 진보 기독교 인사인 서강대 김희성 교수를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위촉했고, 김주원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한 임원숙 인도라망공동체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위촉했다. 이사에는 김영(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에는 안동변호사(재가연대 지도위원), 이경우 변호사(원불교 인권위원장), 김용표(동국대불교학과 교수), 등 대부분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계 인사로는 진보 학계인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김정재 전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채플거부로 논란이 됐던 대광고 강의석 군을 옹호했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홍보 담당자는 18일 사실상의 불교 단체인 종자연에 종교차별 인권실태 조사를 맡긴 것과 관련 "실무자가 워낙을 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내주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종자연의 관계자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계약은 했는데,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다. 22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 단가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상한가는 4200만원이다. 실제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자연이 그동안 기독교 활동을 종교편향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불교나 다른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한 두 건만이라도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조계종은 승가이고, 저희는 재가로서 대부분 불교의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단체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청와대 가족예배,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영상 축하, 서울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 등 집요하게 종교편향 논란을 제기해 왔다.

이런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조계종 승려 출신으로 울산대 법학교 교수로 있는 이정훈 박사는 2008년 11월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회 세미나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불헌 발언, 청와대 가족예배,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한 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 등 불교계가 주장해 온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종교편향 실태 자료집을 만든다며 뉴스파워에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 50주년 축하영상, 전 성북구청장이자 4.11 총선에 새누리당 성북을 후보로 나선 서찬교 전 성북구청장(온누리교회 장로)의 교동협의회 창립 사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서찬교 후보는 불교계가 4.11 총선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이명박 대

통령, 이상득 의원, 황우여 대표를 포함한 8명의 명단에 포함될 만큼 불교계의 타겟이 되었다. 결국 서찬교 후보는 낙선이 됐다.

낙선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정장식 전 포항시장(포항중앙교회 장로)도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도 불구하고 제수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김형태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인 됐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특정종교 발언 때문에 낙선된 것이라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친박의 최경환 의원이 밝힌 바 있다.

황우여 대표에 대해서는 기독교 법조인 모임인 애중회에서 적당한 내용을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워 황 대표를 공격했고, 낙선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 운동기간 중 선거 경쟁 후보들에게 상대방 비방,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말자는 3주와 진실된 공약, 선의의 경쟁, 깨끗한 선거운동 등으로 정책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자는 3유 캠페인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사실상 불교단체라 할 수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종교차별 인권실태 파악을 맡긴 것은 또 다른 종교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은 개인이나, 종교 간의 종교편향이 아닌, 정부가 인사, 정책,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특정종교에 특혜를 줄 때 종교편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종교예산의 70퍼센트가 불교계에 지원됐다며 오히려 기독교가 이명박 정부에서 종교적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의 한 인사는 "종교차별 인권실태 조사는 정부기관과 종교계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종교차별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 여가문화 만들기 체험 프로젝트”열어

‘1차 환경 가구 만들기’ 청소년을 둔 가족들이 참여

사단법인 청소년 인권 복지 센터 '내일'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에서 "가족 여가문화 만들기 체험 프로젝트"로 "1차 가족 환경가

구 만들기"를 지난 28일 토요일 인천 남구에 소재한 청소년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여건상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없어 20가정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실시한 이날 행사는 화창한 주말 가족들이 참여하여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 저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집에서 쓸 가구를 만들고, 강당에 모여 저마다 만든 가구를 선보이며 발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예장(웨신)총회 2012 강도사고시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에서는 2012년에 한하여 총회시행 강도사 고시를 특별전형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시행하오니 강도사고시에 청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시 : 주후 2012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 고시장소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 고시과목

① 필기고사 :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헌법

*논문: "나의 목회 비전"(A4용지 3~4매 이상)

*설교: 설교문 제출 (자유분문과 제목으로 약 10분정도의 분량) 과 설교실기

*면접 :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신대원 M. Div. 과정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한하여 필기고사(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헌법) 면제함.

4. 고시료 : 200,000원

5. 접수기간 : 주후2012년 5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 서류 제출시 논문, 설교, 고시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고시 당일제출도 무방합니다.

6. 제출처 : 웨민선교회 경유해서 총회본부(사무실)로 접수

주소 / 150-8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 02-835-2606~7 FAX 02 - 835 - 2608

7. 응시자격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대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상세한 내용은 웨민선교회와 총회사무실 또는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 835 - 2606~7 총회임시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 8602 - 3009

강도사 고시청원서는 웨민선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총 회 장 성 흥 경 목사
고시부장 김 춘 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하계수련회 개최

주제 :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총회(마20:16)



총회장
황덕광 목사

2012년도 총회 교역자 하계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며 수양회 목적과 취지는 성공으로 실현되도록 회원 전원 참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 총회장 황덕광 목사 외 임원 일동

· 일시 : 2012년 6월 4일(월)~6일(수) 2박3일

· 장소 : 영인산 자연 휴양림

· 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6-1

· 전화 : 041-540-2479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황덕광 목사 학장 강정보 박사

우)121-820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77-1 (로얄프라자 801호) ☎02)323-8201, 8202, 팩스 02)323-8203

총재 장항희 목사 “세계복음화와 선교에 주력할 터”

21세기 지구촌복음화부흥협의회 장항희 목사 총재취임 감사예배

21세기 지구촌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는 지난 5월 9일 오후1시30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총재 장항희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부흥사들의 영적성장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김시중 목사의 인도로 취임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상임회장 김찬영 목사의 대표기도, CTS브니엘 찬양단의 특송,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이사가 40장 9~11절을 주제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유환영 목사), 한국복음화를 위하여(황영웅 목사), 본 협의회를 위하여(조종숙 목사), 세계선교를(김태지 목사)위하는 각각 기도했다.

이어서 총재 추대배 증정, 총재



3-1 (좌)총재 장항희 목사 (우)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3-1 총재취임을 축하

장항희 목사의 취임사, 운영총재 심재선 목사와 글로벌부흥협의회 권미선 목사의 축사, 박천일 목사와 오산리기도원 원장 김상길 목사의 권면, 임종만 목사, 이효은 목사, 최순길 목사의 격려사, 상임

고문 오관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21세기 지구촌 복음화 부흥협의회 총재로 취임한 장항희 목사(일산든든한교회담임)는 대표회장 김시중 목사로부터 여러 차례 총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흥회 등의 일정으로 할 수가 없지만 더 이상의 사양을 접고 총재 수락을 하게 되었다면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부흥사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성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 우뚝 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장 총재는 김시중 대표회장과 뜻을 같이하여 한국교계에 건전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데 진력하고,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국 지역별 부흥성회와 연합부흥성회, 목회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한 영성세미나, 부흥설교를 위한 세미나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연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교회가 필요로 한 세미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대한성서공회 제117회 정기이사회 개최



성서공회 신임위원

대한성서공회 제117회 정기이사회가 2012년 5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서울 서초구 서초2동 소재 대한성서공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어 먼저 이용호 이사장의 인도로 1부 기도회를 갖고 김영현 목사(은평감리교회)가 “신앙의 두 기둥: 말씀과 성령”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신임이사 중 교단대표로 박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우영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규동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우창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용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송영훈 장로, 곽철영 장로, 이정익 목사, 김영원 목사, 이만영 장로가, 감

사로는 최규완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김현배 목사, 부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서기에 이선균 목사, 회계에 손인웅 목사, 실행위원회에 김순권 목사, 정하봉 목사, 이정익 목사, 이용호 목사, 박만희 사관, 엄현섭 목사가 선임되었다.

한기총 교단장 및 총무 50여명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위촉

소방방재청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7일(목)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각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들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50여명의 교단 대표자들은 약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8일 교육 수료식에서는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었다.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각 교단 및 교회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교육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본문으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며 “여기 한기총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각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들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50여명의 교단 대표자들은 약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8일 교육 수료식에서는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었다.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각 교단 및 교회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금번 교육은 4월 13일 한기총과 소방방재청이 체결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공동추진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고, 전국 단위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교육을 이수한 교단총회장들은 ‘생명존중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참석자 모두는 ‘심폐소생 능력’이 수 자격증’을 받게 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실제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 방법’, ‘기도패시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작동 방법’ 등을 실습하며 목회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생명 존중에 대한 숭고함마저 일게 했다.

한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에는 이외에도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 추진,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중증환자의 적정한 처치 및 신속한 이송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영 목사 제1회 전국목회자성령컨퍼런스 개최

5월 28일부터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한국교회여! 성령의 회오리바람 다시 불어라!”

한국강해설교학과 전문목회연구원(원장 박원영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석촌동 잠실동교회(백광진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명성수양관(김삼환 목사)에서 제1회 전국목회자성령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혀 한국교회

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회 전국목회자성령컨퍼런스는 한국교회에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다시 불어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의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해설교학과 전문목회연구원 원장 박원영 목사(서울나들목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강해설교학으로 목회자들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으나, 교회를 개척하고서 6년 만에 다시금 신선하고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제1회 전국목회자 성령컨퍼런스를 새롭게 실시하게 된다”면서, “목

회를 하면서 어린 시절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감동함이 절실하고, 교회 개척 후 시작한 새벽예배 때 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늘 기도 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와 기도의 영성을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령이 정제되고 영성이 떠나가는 느낌을 보면서 안타깝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령의 영성으로 다시 화해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수월되어야 한다”면서, “교회 성장에 꿈이 이뤄진 대부분의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공통적으로 있었으며, 이 성령의 사역들을 신학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재조명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돕고 지원하여 전국 방방곡곡 교회를 마다 성령의 강력



박원영 목사
서울나들목교회

한 임재가 일어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제1회 전국목회자성령컨퍼런스의 감사진으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수영로교회 원로 정필도 목사, 안상동산교회 김인중 목사가 ‘우리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 소개’, 충신교회 원로 박종순 목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 특별강좌에는 대전종문교회 장경동 목사,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분당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내가 체험한 성령의 일하심-사역’ 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컨퍼런스 행사 동안 새벽집회는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종교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계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계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변학기 교수진

정기회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호교수(고대근동학) : (Ph.D)(美)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영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학)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성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안병상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연구)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을 돌아보고



축성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완성하였다고 부르게 된 삼년산성(충북 보은군 보은읍 아미리 산 1-1)을 가보다!!

삼년산성? 만들어진지 삼년밖에 안 되서 삼년산성인가 아니면 삼년만 만들었다고 삼년산성일까? 삼년산성을 오르기 전까지 왜 이름이 삼년산성일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되었다. 삼년산성은 사적 제 235호 지정되어 있다.

충북 보은은 이웃한 괴산 땅과 마찬가지로 산지가 많다. 삼국시대의 각축장이던 충북에는 곳곳에 산성이 많은 편으로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산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삼년산성이다.

기자가 찾아가서 보았던 삼년산성은 규모가 정말 컸다. 삼년산성은 신라 재비밀관 13년(470)에 축조되었고, 그 후 소지밀관 8년

(486)에 아찬 실족이 일선군 장정 3천명의 인부를 징발해 개축하였다.

축성을 시작한지 3년만에 완성하여 삼년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가 서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였다고 한다.

삼국통일 전쟁 때 태조 무열왕(654~661, 재위)이 당나라 사신 왕문도를 이곳에서 맞이하기도 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918~943, 재위)은 이 성을 점령하려다 크게 패하였던 곳이다. 이 성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축산성으로 평가되며 성의 둘레는 약 1.7km이고 성벽의 높이는 13m, 폭은 8~10m에 이른다.

이 성에는 서문, 북문, 동문 터가 있고, 특히 성벽의 군데군데에 곡성이 있어 우리나라 고대 축성법 연구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



다. 성내에는 아미지란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이 주위의 암벽에는 옥필, 유사암, 아미지 등의 글씨가 음각되어 있는데 감생의 필체로 전해오고 있다.

충북 보은은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영토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된 곳이었다고 한다. 신라는 470년 자비왕 때 삼년산성을 축성하여 한강유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고 고려시대에 삼년산군은 보령군으로 고쳐졌는데, 조선 태조 때 충청남도의 보령과 이름이 같아 보은군으로 고쳐 지금까지 보은군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50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웅장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삼년산성은 경북 상주 경원산성,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과 함께 삼국시대에 세워진 산성중 보존 상태가 제일 양호하고

멋진 산성이라 한다. 성벽을 쌓은 돌들은 모두 얇고 넓직한 관돌로 손으로 일일이 다듬은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쌓아 우물 정(井)자 모양이 되게 했는데, 이 방법은 성 위쪽의 무게가 아래로 고루 퍼지게 하는 기술로 성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교한 축조방법이었다고 한다.

백제와의 국경에 쌓은 삼년산성.... 먹느냐 먹히느냐? 삼국이 운명을 걸고 전쟁을 다투던 시기이니 튼튼한 성을 쌓았을 게 분명하다. 신라가 고구려의 산성 축조 기술을 배워 이 산성을 쌓으면서 국방력을 키워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발돋움이 됐던 중요한 성곽이다. 보은에만 성터가 14개가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곳이다.

박수영 기자(대주지사장)

인천 가족문화 축제 성황리에 마쳐

푸르른 5월 가족이 한 마음 되....

12일 오후 기자가 찾은 곳은 인천 부평에 위치한 부평공원이다. 이미 행사가 오후 1시부터 진행 중이었다. 유독 아버지들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공원에 가족단위로 텐트를 치며, 여러 행사에 참여한 후 다들 가족 합동화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날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인천 내 여러 구중 3개구(부평구, 남구, 서구) 건강 가정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제8회 가족 협동화 그리기 및 가족 케익 만들기와 한부모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가족 케익 만들기 같은 경우는 30분정도 밖에 시간이 안 들지만 반드시 아빠를 대동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바쁜 일정 속에 아빠가 한자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따라서 손 씻기 다트 게임과 페이스 페인팅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페이스페인팅은 부천대 학생들이 봉사를 해주었다. 5월 달도 준중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다. 눈여겨보면 몇 천원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가족이 행복한 한 때를 지내는 행사들이 많이 있다.

이날 주변 사람들도 의외로 이런 좋은 정보를 알지 못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저지스티임즈 광영민 기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행

사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에 나섰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발품 팔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무국장 광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에 한국교회 적극 동참 절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50주년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안금남 목사)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예정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 예정고신 부총회장 박정원 목사, CCC 대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인요한 박사, 하버드대학 장성철 교수, 광주광역시교단협의회 임원, 구례군기독교총연합회 임원, 교계 대표들, 일반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을 했다.

이날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공동이사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구례군기독교총연합회 이양재 목사의 기도, 박준형 목사의 성경봉독, 예정합동 총회장 이기창 목사의 설교와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이며 공동이사장 인요한 박사의 유적지 소개, 예정고신 부총회장 박정원 목사의 축사, CCC 대표 박성민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또 인요한 박사, 하버드대학 장성철 교수, 광주광역시교단협의회 임원, 구례군기독교총연합회 임원, 교계 대표들, 일반성도 등 150여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CCC 전남 광주 지역 학생들이 봉사팀을 구성해 금번 50주년 기념예배의 찬양과 행사진행을 도왔고, 김준근 목사의 생존 시 지리산 선교유적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받들고,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과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는 구한말 우리나라 개화기인 1895년부터 시작된 미 남장로교의 선교역사 현장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곤란한 것이

종토병(말라리아, 학질,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었다. 당시 선교사 가운데 67명이 사망한 것에 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선교사들이 질병 치료와 휴식, 그리고 재충전을 위하여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을 1922년에 설립했다. 이곳은 한 때 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60여 동의 건물로 선교사들에게 적합한 수양 장소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구약성경을 번역하고, 한글 문법책을 만드는 등의 활동도 병행했다.

그러다가 1935년 신사참배문제로 조선총독부와 선교회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해 '폴턴 선언'(Fulton Declaration)을 통해, '신사참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일제에 의하여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광주 수피아, 송일, 목포 정명, 영흥, 전주 신흥, 기전학교)가 폐쇄되고, 1940년 선교사들은 강제 출국 당하고, 1941년 미·일 전쟁(태평양 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가 이곳을 '적산 처리'하여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해방과 6·25 한국 전쟁 이후, 노고단 지역의 선교사 유적지는 대부분 훼손됐다. 이에 순천에서 결핵요양원을 하던 린튼(인 휴) 선교사와 전주에서 성경학교를 하던 하버드 선교사가 지리산 왕시루봉 일대에 지난 1961년부터 목초와 토담집 등을 조성하게 됐다. 현재 이곳 지리산 선교유적지에는 12동의 건물이 선교사들의 숨결을 고이 간직하



채 남아있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오정희 상임이사는 "이번 5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와 현대사에 큰 공헌을 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삶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선교유적지 보존을 위하여 근대 기독교 등록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

력하는 뜻 깊은 의미의 시간이었"다"면서, "한국교회가 지리산 선교유적지의 등록문화재 등재와 기독교 유적지 보존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 다음세대인 우리의 후세들에게 기독교 선교유적지를 잘 보존해 전달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병범 목사

담 임 : 서병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 무 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설립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실
	금요일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길
주 일	유초동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영양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여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말씀전원교회 1만평의 동산 심과치유센터로 개방

방석진 목사 영적재충전을 위한 아름다운 전원동산 누구든지 활용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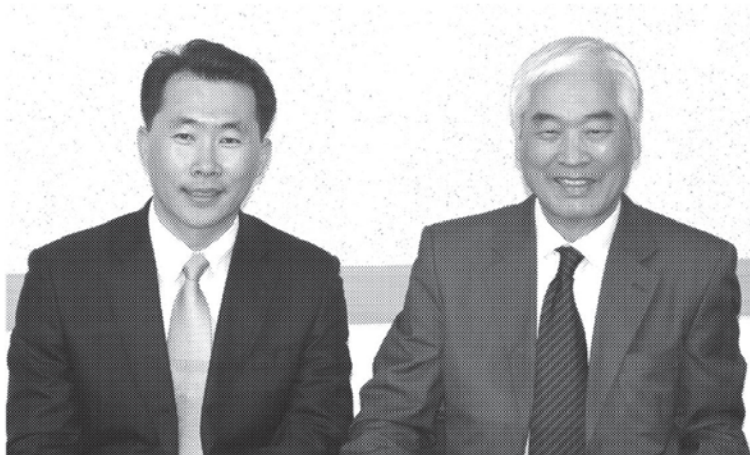
경기도 의왕시 말씀전원교회(담임 방석진 목사, 원로 최병학 목사)는 지난 5월 2일 교회 본당에서 안양시와 의왕시 시민을 위한 제1회 영상홍 대축제를 열고, 자연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회 영상홍 대축제 개최예배는 말씀전원교회 방석진 목사의 사회로 열려, 의왕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익로 목사의 대표기도, 방석진 목사의 '천지창조'라는 제하의 설교, 의왕시부회장 기길운의 원(평촌교회 안수집사)과 수도노회장 정진철 목사, 말씀전원교회 원로 최병학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방석진 목사는 "말씀전원교회는 지역교회들과 연대해서 지역을 섬기고 자연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영상홍 대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과 숲에서 원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말씀전원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 치유가 있는 곳, 영성이 있는 곳이라는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치유와 영성이 있는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동 교회는 원로 목사인 최병학 목사가 지난 10년전 방배동에서 교회를 이전하여 자연 속에 일만평의 공간에 전원교회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또한 동교회는 경기도 모락상과 백운산 등산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교회 산책로를 통해서 편안한 등산을 할 수 있으며, 자



〈사진 좌측 담임 방석진 목사, 우측 원로 최병학 목사〉

연체협 학습장, 전원 갤러리, 1천 권 이상의 어린이 도서관, 전원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말씀전원교회는 교회당 안에 기독교적 예술작품을 전시해 나갈 예정이며, 교회 앞 마당과 숲 속에 기독교적 예술조형물을 전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회 내부에서는 2달에 한번씩 기독교 작가들이 만들어진 예술품들은 전시하는 일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시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해 자연 속에서 원과 함께 예술작품을 체험하는 시간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병학 원로목사는 "말씀전원교회의 비전을 품게 된 것은 지난 30여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자연 속에 함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자연 속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서 영적재충전과 육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전을 품게 됐다"면서, "10여년 전에 방배동에 이곳

의왕시 의전동으로 이전한 말씀전원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일 반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누구나 쉽게 자연 속으로 다가가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산책, 그리고 기독교 예술 작품 등을 감상하고, 어린이들이 쉽게 자연을 찾아 자연 속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상을 구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곳의 교회 부지는 1만1000평이며, 교역자를 위한 사택과 기도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500여평을 확보해 설계가 끝나 있다"면서, "특히 충북 충주시에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지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8만 8500여명평을 확보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목사는 교회를 찾아오는 단체나 성도들에게 실비로 교회가 지원을 하고, 한국교회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담임 방석진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괴리감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

전원교회는 한국교회의 모델로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서 교회의 1만1000여평의 공간을 모두 개방하고, 다양한 섬기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석진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의 만족도는 200%에 이른다. 특히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과 자연적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았고, 매주 수요일은 저녁예배가 아닌 오전 10시 30분 예배를 드리는 데 초교과적으로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찬양예배를 드리고 산책, 무료 점심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석진 목사는 "우리교회는 전원교회의 특성화를 살려 매주 마지막 주일은 피크닉 타임을 진행하며, 주일날 모든 성도들은 각 목장별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숲속에서 각 목장별 대화와 산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말씀전원교회는 자연 속에서 원과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자연 속의 전영역에 걸쳐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 것을 직접 자연 안에서 체험하는 교회로의 전원교회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길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석진 목사는 "앞으로 우리 말씀전원교회는 전원카페를 새롭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교회를 방문해 산책과 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새로운 활력과 함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전원카페는 바리스타가 만드는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해외 빈곤아동 돕기에 전액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방석진 목사는 "말씀전원교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개방을 한 만큼 앞으로도 전원교회로서의 특성을 더욱 살려나가서 공교회로서의 대사회적인 섬김의 사역을 실시해 나갈 것이고,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자연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일반계시를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목협, 중앙위원 및 상임회장단회의 개최

한국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가 최근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중앙위원 및 상임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한목협)



한목협, 중앙위원 및 상임회장단회의 개최

김경원 목사(예장합동)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한국교회 연합운동 관련 선언문을 5월 중에 연기명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또 각 교단 목협별로 기도모임이나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전국수련회 시에 구체적인 모임을 통해 실천적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한목협 제14회 전국수련회를 "한국교회와 우리의 희망 - 주여! 어찌 하오리까?"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8일(월)~19일(화) 양일간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총무단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목회자 윤리강령 채택 및 한국교회윤리위원회 설치에 계속 논의하

고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 개신교인 의식조사 리서치는 GHKorea에 의뢰해 진행하기로 한 것을 보고 받은 후 유만석 목사(예장백석)의 마침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인웅 목사(명예회장)와 전병금 목사(대표회장) 이상구 목사(상임총무) 추연호 목사(기감) 김운태 목사, 허성호 목사(기성) 김원배 목사, 최부욱 목사(기장) 유관재 목사, 김명식 목사(기침) 김병현 목사(기하성) 김은섭 목사(루터회) 박경조 주교(성공회) 윤희구 목사(예장고신) 유만석 목사, 김봉태 목사(예장백석) 조성기 목사, 박기철 목사, 안기성 목사(예장통합) 김경원 목사(예장합동) 이상화 목사(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교연 총무협의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최귀수 목사 선출



한국교회연합 가입교단 총무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5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회장에 최귀수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조직했다. 15개 교단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장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임시서기 박광철 목사가 창립회원을 호명했다. 이어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규칙

을 통과시킨 후 총무협의회 회장에 최귀수 목사를 선출했으며, 부회장과 신임원을 인준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 최귀수(예성), 부회장 권남수(합동개혁A) 김명희(보수개혁) 윤경원 장로(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 이경숙(백석) 최희용(개혁) (가나다순) 서기 박광철(진리) 부서기 홍찬혁(합동보수B), 회의록서기 김명찬(한영), 부회의록서기 전홍

식(합동복구) 회계 김혜은(연합) 부회계 최형영(나사렛) 감사 서운담(개혁A), 서정숙(피어선) 등이다. 한편 총회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한교연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윤경원 장로(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 총무)의 기도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HGIROUN CHURCH 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목사 정일랑,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연 박사 연구원장

조관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향지역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	3년	4차(대교)나 1차(대) 졸업장 취득 후 동종 지역 전향	주: >개별학/과제, 거음/이: >원칙, 육공
	목회신학석사(MA)	2년	4차(대) 졸업장 취득 후 동종 지역 전향	
신학원	신학사(MTh)	4년	고등학교 졸업장 및 동종 지역 인정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장애인복지사(간) 자격 취득
	예교학사(MD)	3년	고등학교 졸업장 및 동종 지역 인정자	
	평신교교목과	2년	학위(학사) 취득 후 신학과 연계하여 4차 졸업장 취득 후 신학과 연계하여 4차 졸업장 취득	
	사회복지사	2년	고졸자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본 1부

외국학력인증서, 사진 4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다른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장은 연구원 과정에 전학

3) 사회복지사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장애인복지사(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관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모상연 박사(M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HP 010-9049-373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화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설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7)

제4부 보배로운 그릇(3).....“이기는 자”

베드로후서 1장13절을 중심으로 베드로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된 베드로가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견고하게 진리를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해 증거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벧전 1:7, 13)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7절에서 말씀하시며, 5장1절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등 베드로 전후서 말씀의 핵심은 주의 재림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된 베드로의 입에서 증거 되는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철장관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쓰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되는 이유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며, 그 보배는 재림하실 신랑예수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예수가 보배이며, 신랑예수를 담고 있으면 보석그릇입니다. 보석그릇인 우리는 예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며, 칭찬과 영광을 함께 받게 되며 흠 없고 점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멸시받거나 죽이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 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직접 통치하시게 됩니다. 구약교회의 기동인 모세와 엘리야, 신약교회의 기동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 이어, 천년왕국의 기동은 일곱 금촛대 교회의 이기는 자입니다.

계 3: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으로 삼으리니” 이기는 자는 일곱 금촛대 교회에 주신 재림 예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긴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된 이기는 자 안에는 재림하실 신랑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며 기쁨으로 증거할 때, 대적하는 악한 자나 비진리와 싸워 이겨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11절의 뜻은 하나

님께서 보석그릇으로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 성전의 기동으로 삼아 진리를 증거케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뒤따라 달려오게 하시는데,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할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실상으로 받은 금면류관을 굳게 붙들고 계속 앞서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8절을 보면, 금촛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께서 천년왕국의 모든 세계를 열어 주시는데 그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성전의 기동으로 서게 될 모든 자들에게 영광이 예비되었음을 열린 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스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자들이 열려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증거하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4절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도 이기는 자로,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잘 깨우쳐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며 보석그릇으로 쓰시다가 순교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1장7절의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어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앞서 달리게 하신다가 끝내 이기는 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그릇이 된 베드로를 나에게 본(本)으로 보이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이기는 자로 세우신 후 천년왕국 교회의 기동으로 삼으실 뜻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에 의해 증거 된 베드로후서 1장12절(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할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의 기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그릇이 된 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보석그릇으로 세워집니다. 순교할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라서야 하며, 그 믿음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예비된 영광은 붙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 신약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 성전의 기동으로 삼으셨듯이, 예수 재림하시는 우리의 때에는 우리를 천년왕국 교회의 기동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말 4:5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초림 예수를 증거하도록 선지자 세례 요한(눅1:17, 마7:10~13)을 주 앞에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재림 예수를 증거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 재림에 앞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신약교회의 마지막 사역자인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계 3:4), 두 증인(계 11:3), 십사만 사천(계 7:4),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일하는 자로, 보석그릇으로, 이기는 자로, 주의 재림하실 때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계 20:4)에 이르게 하시며 천년왕국의 기동으로 세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배로운 목격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쓰실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석그릇 된 자 안에는 재림하실 신랑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랑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보석그릇으로 쓰시다가, 이 땅을 벗어날 때에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원한 생명(조예)이 되게 하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사람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예수님의 최후 10일간의 행적 부활 그 이후(4)

행적 재판(3번)

1. 빌라도 1차 심문 요18:28-32, 눅 23:1-7, 2. 헤롯 심문 눅23:8-12, 3. 빌라도 2차 재판 요18:33-40, 눅 23:13-25, 예수님을 넘겨 줌, 오전 6시 (요18:28, 19:13-16), 예수님을 못 박음, 제3시(오전 9시)막15:25, 헤가 어두워짐, 제6시(정오), 막 15:33, 예수님 숨을 거두심 제9시(오후 3시)막15:34-37, 1월15일(목) 무교절(레위기23:6), 무교절의 첫날 큰 날(요19:31), 절기의 안식일(출 12:16), 14일(수) 오후 6시 유대인들 유월절 양 먹는 날(요18:28), 15일(목) 계명의 안식일(레23:11), 16일(금) 오후 6시 명령에 따라 계명

1월 16일(금), 15일(목) 오후 6시, 절기의 안식일이 지난 후 막16:1, 16일 오전 6시, 함풍들과 함유를 준 비환 날 막16:1, 눅23:56상, 1월 17일(토) 계명의 안식일(레23:11), 16일(금) 오후 6시 명령에 따라 계명

셋째 날 마16:21, 17:23, 20:19 막 10:34눅9:22, 18:33, 24:17 삼일 후 마26:63, 막18:31 사흘 만에 요2:19 3. 사흘 낮들과 사흘 밤들(셋째 날, 삼일 만에, 사흘 뒤에) *마12:40: 이는 요나가 사흘 낮들과 사흘 밤들을(three days and three nights)을 땅의 핵심부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KGE 바이블)

*고전15:4: 잠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마16:21, 17:23, 20:19, 막10:34, 눅9:22, 18:33, 24:7) *마27:63: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아직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셋째 날, 사흘 후, 삼일 후)

예수님께서는 땅의 핵심부분에서 삼일 밤들과 삼일 낮들을 계시다가

오 오후3시, 최후의 만찬 세족식(마 26:17
-29, 막14:18-25, 눅22:15-20, 요 13:1-30, 겐새마네기도(마26:30-46, 막14:17

32-42, 눅22:39-46), 종교재판(3번) 1. 안나스 심문(요18:13-14) 2. 가이바 심문(마26:57-68), 3. 공회 심문(마27:1, 막15:1, 눅22:66-71, 요 18:29), 행정재판(3번) 1. 빌라도 1차 재판(마27:1-2, 막15:1-5, 눅23:1-7, 요18:29-32)

2. 헤롯 심문(눅23:8-12), 3. 빌라도 2차 재판(마27:11-26, 눅23:13-25, 요18:33-19:22),

십자가 지심(막15:20-21, 요 19:13-24), 가상 7연(1-3), 십자가에 못 박히심(막15:25), 架七言: 1. 눅 23:34, 용서의 십자가, 2. 눅23:43, 소망의 십자가, 3. 요19:26-27 효도의 십자가, 가상7연(4-7), 온 땅이 어두워짐(마27:45, 막15:33, 눅 23:44), 架七言: 4. 마27:46, 막 15:33, 고난의 십자가 5. 요19:28 생수의 십자가, 6. 요19:30 구원의 완성이자, 7. 눅23:46 영혼의 위탁 십자가, JX 숨을 거두심(마27:50, 막15:37, 눅23:46, 요19:30), 무덤에 장사되심(눅23:53-55, 요19:41-42),

범죄 crime 살인, 강도 따위 법률에 어긋난 행위, 죄(罪), 죄 sin 종교나 도덕상의 죄, 불신(sin 不信 롬 14:23), 허물 transgression 제한이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이탈한 행위 불법(transgress 不法 요일3:4), 죄악 inguities 불법들, 불의(uprightness 不義 요일5:17), 죄책 guilt 죄를 알고 죄책감을 느낌 불행(sin 不行 94:17), 불법 offence crime 만큼 무겁지 않더라도 널리 도덕 공공이익 법률 따위에 위반되는 행위,

(다음호에 계속)



원장 김수정 교수

3일 밤들과 3일 낮들을 지내신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의 안식일에 쉬는 날, 눅23:56하, 17일(토) 오전6시, 1월18일(주일) 초실절(레23:10-11), JX 부활의 날, 17일(토) 오후 6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JX께서 부활하심 막16:9, 18일(주일) 오전 6시, 17일(토) 오후6시 이후 곧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주의 첫 날이 시작되면서 부활하신 후에(막16:9), 18일 새벽에 아침 일찍이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나타나심 마28:1-15, 막16:2-8, 눅24:1-10, 요20:1-10절,

안식일 막15:42(절기)the day before the sabbath, 막16:1(절기)when the sabbath 막16:9:N-GN-S(계명)the first day of the week 눅 23:54 N-GN-S(절기)and the sabbath drew on 눅23:56,N-GN-S(계명)and rested the sabbath day 요19:31,N-GN-S(절기)on the sabbath day 그 주의 첫날 마28:1,N-GN-P(계명) the first day of the week 막16:2,N-GN-P(계명)the first day of the week 눅 24:1, N-GN-P(계명) the first day of the week 요20:1,N-GN-P(계명)the first day of the week 요20:19, N-GN-P(계명) the first day of the week 삼일 밤들과 삼일 낮들 마12:40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곧 그 주의 첫째 날이 시작하자마자 17일 일몰 후 부활 하신 후(막16:9)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내신후인 18일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면 밤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2번이고 낮은 토요일 낮 한번뿐이므로 삼일 낮들과 삼일 밤들(three days and three nights)이 안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에 수요일은 JX께서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JX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확인된 바로 그 때에 부활을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시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무덤에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고전15:4) 우리의 모든 죄와 법과 불법을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밤들과 3일 낮들을 지내신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행적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정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장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어문법(전준역 교수)

일기쉬운 52주 헬라어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교수
(본지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도평우림A202동 1505호

- 문의: 031-767-7651, 010-7520-765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교론)

강의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전용)

칼럼

신뢰받는 경찰

경찰은 국가 조직의 근간이다. 8.15 해방 직후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정부가 출범 하였다. 안정 사회를 위해 국립경찰을 창설하여 민생치안에 주력 하였으며, 잡살이 보자는 일념으로 새 마을 운동을 일으켜 국민정신을 계도 하여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국민 모두의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되었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혼란이 있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 강·폭력 등 수 많은 범죄 등으로 혼란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계층에서는 병든 사회, 썩은 경찰로 비하 평가하기도 한다. 모든 범죄 행위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제도적, 법적, 생활규범에 완전히 못난 채 기인되기도 한다. 경제 성장과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 종 부정, 부패, 비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 집행으로 안정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일부 경찰이 업소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하여 썩은 경찰로 표현 한 것과 사회 전체를 병든 사회로 규정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깨끗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모든 공직

자 들은 청빈함이 원칙이다. 일부 몇 사람의 비행으로 공직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어려움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다. 밥집을 설치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한 끼의 접대도 거절하는 청빈한 공직자가 수 없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몇 사람의 부정 비리로 인해 경찰 전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북한 공산당은 6.25 당시 우리의 우익 인사들을 체포해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수한 인권을 침해해 살해 했다. 국가 사회 발전을 비방하며 집회 시위로 혼란을 조장시키는 것은 발전의 저해 요인 인 것이다. 중북좌파세력들은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정신 계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찰은 위법 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압으로 강인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찰은 약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반면 경찰 내부의 기강도 강해야 한다. 직장 혼란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힘이

약해 강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누가 경찰을 신뢰 하겠는가! 강력한 경찰력으로 민생 치안에 임하여야 하겠다. 1960~70년대의 무술 경찰을 생각해 보자. 당시 국가 혼란기의 사회 안정을 위해 밥집을 설치하면서 강대소탕을 했으며, 모든 범죄자 들을 체포 조치하여 사회 기강을 바로 잡았다. 갈수록 죄질은 악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지능범, 약집범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경찰의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행 법안을 마련하여, 범법자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법안도 있어야 한다. 문책보다는 과감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빈한 경찰, 지능 경찰, 무술 경찰을 통해 사회 안정을 희망하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받는 경찰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란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국제목회자협 韓-中서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국제목회자협의회(회장 Bro.Scott Jones 목사)가 한국과 중국에서 아시아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컨퍼런스는 국제목회자협의회 임원진 및 아시아 지역 회장인 김수만 목사 등이 참석 연합과 일치성을 통한 글로벌 목회자 네트워크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회장 Bro.Scott Jones는 “아시아 지부 순회와 선교 전략국 복음화를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현장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 기류에 목회자들이 편승해 초교파적인 연합과 일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세대를 초월하는 목회자 연합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목회자협의회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700여명의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목회와 선교, 기독교 문화 등을 교류하고 있다. 협의회는 1996년 현 회장인 Bro.Scott Jones 목사 등이 글로벌 시대를 대비 목회자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 설립하게 됐다. 협의회 주요 사역으로는 목회 교류와 사역자 양성, 전 세계 목회자간 연합과 일치 운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복음화 전략을 위해 선교 전략국 등에 대한 목회자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지부 회장 김수만 목사는 “국제목회자협의회는 미국을 비롯한 초교파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복

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세계 최대 선교 전략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세대를 초월한 사역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목회자협의회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진행 했으며, 4일부터 9일까지는 선교 전략국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깨울 때”

대한민국어머니기도협의회 설립 감사예배 및 유순임 목사 총재 취임

대한민국어머니기도협의회는 서울 답십리동 반석교회(김대중 목사)에서 창립 감사예배 및 총재 유순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민족의 등불이 되어 기도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해 한국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지미숙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의 대표기도, 반석교회 천안대의 특송, 우리교회 총회장 이규희 목사의 ‘새 시대를 여는 문고리, 한나의 기도’라는 제하의 설교, 기독교 교수와 문화원 장로의 특송, 총재 유순임 목사 추대패 증정, 대표 고문 주선에 교수 추대패 증정, 서울여자대학교 이광자 총장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목사의 축사, 공동총재 황산성 변호사와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의 격려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 한국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 1.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력이 이사장, 2.대통령을 위하여 예경연합총회 총회장 정초자 목사, 3.국민화합을 위해 예을 이사 김영명 권사, 4.남북통일을 위해 119기도회 대표회장 주복자 목사, 5.국회와 사법부를 위하여 합동선교총회장 문화선 목사, 6.목회자와 이단 대처를 위한 기도에서 민족복음화 여성강사단장 임은선 목사, 7.학원 폭력과 동성애 방지를 위해 한국기독교여성교육원장 홍관옥 목사, 8.대한민국 어머니기도협의회를 위하여 베데스다 기도원 이운정 원장 등

이 각각 대표해 기도했다.

따라서 동 기도협의회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기독교 여성들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성구국기도운동 단체이다. 동 단체는 “기도의 어머니여!..당신은 민족의 심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표어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활성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고문 주선에 교수는 “이 땅에 어머니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강토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로움으로 동산으로 만들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 총재 유순임 목사는 “백년전 문준경 전도사와 감마리아 여사 등이 수많은 여성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 3.1운동 여성구국운동 펼쳤던 전통을 이어 이제는 기도의 씨앗이 돌아나 이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기독교 여성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무

연대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제1회 세미나 열어



연 세 대 학 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항희 목사)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목

회와 교회성장”이란 주제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1회 목회자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석환 박사(한국기독교신학대학원장)는 “치유 목회론의 심리학”, 강영선 목사(일산순복음영산교회

담임)는 “성령과 교회 부흥”, 피종진 목사(남서중영교회 원로목사)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 관리”, 장항희 목사(든든한교회/본협의회 대표회장) “부흥 설교학과 교회 성장”이란 등의 주제로 각각 강사로 나섰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성경찬양회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양교과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분	시 간
1	초신자모임(가게)	매주 오전 11:00
2	배움교실	주일 오전 10:00
3	학구교실	수요 오전 12:00
4	목자교실	주일 오후 2:00
5	송년회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초등부	주일 오후 2:00
8	대학부	주일 오후 2:00
9	청년회	주일 오후 2:00
10	초신자모임	오전 11:00 (수, 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분	시간	강사	기분	시간	강사
유치부	주일 오전 9:00	4층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전 11:00	2층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4층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2:00	2층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2층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7:00	4층
	주 일 오후 3:30	수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 5:00	4층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셀 예배	설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정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저주를 받으신다(고후 3장 17절)

예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nister)

감독 이철재 목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우리농민살리기운동본부 기독교생협 창립

농민 회복 통해 농촌교회 살리고 생명실천운동 전개

우리농민살리기운동본부 기독교생협이 창립됐다.

이와 관련하여 28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열고 농민 회복을 통해 농촌교회를 살리고 생명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사장 이정춘목사는“우리농민 살리기운동본부는 농민들의 수고와 땅이 배어 있는 노력의 대가가 농민들에게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독교 단체이다”면서“우리 농민을 살리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유익하게 하고 이를 선교의 활로로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도농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 형태로 연결하여 생산자는 착한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착한 소비로 농민의 생산력을 높이면 농

촌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며“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기독교생협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우리농민살리기운동본부는 교회나 선교회의 소평몰을 통해 직간접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서“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장 강진희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감사예배는 박유섭목사(대한민국경향복음화협의회 여성대표회장)의 기도, 원덕희목사(주님의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사장 이정춘목사가 ‘회복된 가정’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천일목사는 축사를 통해“살리는 운동은 매우 귀한 것이다”며 “농민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는



농민 살리기 운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이 운동은 서로서로를 살리는 사랑하는 운동이다”며“일방통행이 아닌 농민과 소비자도 살리는 운동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축하했다.

조성철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사업본부장)는“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며“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개혁신도총 제15차 세계산업인대회 가져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주최하는 제15차 세계산업인대회가 5월16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향리에 위치한 뽕넛트신학교에서 ‘영적소통’(고전16:18)이라는 주

제로 개최됐다.

12개국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대회순서는 10시30분에 오프닝세레모니가 진행되어 사회는 뮤지컬배우 문혜영씨

가 맡고 세계산업선교회장 박치학 장로가 개회선언을 하며 조경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와 정은주 목사(예원교회 담임, 증경총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1부 예배에서 류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장)의 설교, 조경대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의 축도가 있었다.

중식 식사이후에는 대구경북연합회 주관으로 ‘연합회 미션포럼’이 진행되었으며, 연합회미션포럼은 각 연합회별 ‘영적소통’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각 연합회(지회)별로 응답 받은 내용을 연합회(지회)별 특색에 맞게 발표하는 시간으로 성극, 합창, 개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30분 2부예배가 진행되어 류광수 목사의 설교, 김동권 목사(안양동부 담임,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대회 기간 중 참석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강을 돕고자 서울연합회에서 Tea House 운영되었으며, 여성산업인회에서는 지난해 이어 제2회 OMC 장학기금마련 바자회를 가졌다.

특별이 점심시간에는 영산업인회에서 청년 및 대학생 인턴십을 위한 전문별 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임을 가졌다.

금번 세계산업인 대회를 통해 우리 산업인들이 더욱 힘을 얻어 후대들의 굳건한 발판이 되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며,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천시복음화 기도회 및 4.11총선 당선자 축하식

진정한 애국은 각자의 본분 다하는 것

매달 둘째 주일 오후 5시면 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천시장과 각 기관장들을 초청해 “부천시 번영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차근규 목사)가 금번 5월에는 4.11총선 당선자 축하식을 겸하면서, 진정한 애국의 길을 모색했다.

13일 오후 5시 30분 700여 명이 모여 성황 중에 진행된 이번 기도회 및 축하식은 평소 보다 2~3배 넓은 시청 2층 대강당(아울름마당)에서 진행됐고, 찬양과 위신 등 각종 축하순서들이 은혜를 더했다.

전도위원장 성양권 목사(사랑의교회)가 사회를 맡았으며, 공동회장 이성화 목사(서문교회)의 기도, 문영기 장로(중동교회 장로회장)의 “에스터 4:10~17” 성경봉독, 순복음중동교회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공동회장 김경문 목사(순복음중동교회)가 “나라 사랑과 신앙” 제하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천국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면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고, 갈등과 분열을 벗고 함께 연합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잘되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나가자”고 전했다.

2부 축하식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영진 목사(원미동교회)는 축사를 통해 “31개 시군에 1200만명 이 살고있는 경기도에는 17000 교회가 등록되어 있고 350만 성도가 있다. 그런데도 하루에 42명, 1년이면 15000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다. 모두가 살기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담력, 매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덕으로 다스릴 줄 알고,

양심이 깨닫한 당당한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문교회 이종대 목사의 격려사후에는 원혜영, 설훈, 김상희, 김경협 국회의원과 김종석 엄종현 도의원에 축하패를 전달했다. 원혜영(경서교회), 설훈(성문교회), 김상희, 김경협(혜린교회) 국회의원은 각각 4선 3선 2선 초선의원으로 답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본받아 겸손히 바르게 열심히 섬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렵고 힘들며 고충받는 시민들의 편에 서겠다면서, 부천시민이 뽑아준 구민의 대표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것임을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인사말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함께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팔도사람들이 어울려 화목하게 살아가는 부천은 면적이 작지만 대단히 큰도시”라면서 “당선자 명만 봐도 경기도 부천과 영남, 충청도, 호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안배되었으며, 이러한 조화는 부천을 행복도시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뽑았으니 본분을 빼어낸다”면서 “함께힘모아 정의로운 부천 행복찬 복지 부천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말했다.

부기총 총회장 차근규 목사(순복음부천교회)는 “평소보다 몇배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열매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하다”면서, “당선자들은 우리의 일꾼 우



리의 식구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부천시의 국가를 위배되었으며, 이러한 조화는 부천을 행복도시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뽑았으니 본분을 빼어낸다”면서 “함께힘모아 정의로운 부천 행복찬 복지 부천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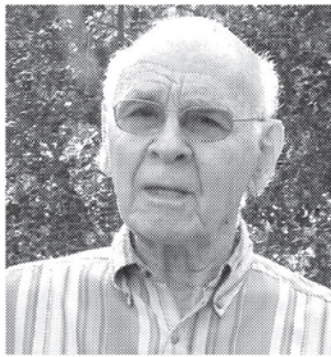
부기총 총회장 차근규 목사(순복음부천교회)는 “평소보다 몇배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열매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하다”면서, “당선자들은 우리의 일꾼 우

등으로 은혜를 더했다. 부기총은 오랫동안 오후 3시에 드리던 부활절연합예배를 과감히 새벽으로 시간대를 옮기고, 장소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활절새벽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연합사역에 더 힘을 얻고 있다. 예년에 비해 무대설치 등 어려움이 몇배 컸으나 헌신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 6000여고, 사무총장 김재우 목사(성서교회)의 연합회 소식 보고, 증경총회장 이호성 목사(참사당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그리고 순복음중동교회 찬양대와 원미동교회(김영진 목사) 아웨이크 찬양팀과 디아코니아 중창단,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도미니&웹서바 중창단 등이 예배 찬양과 식전행사, 축하

등으로 은혜를 더했다. 부기총은 오랫동안 오후 3시에 드리던 부활절연합예배를 과감히 새벽으로 시간대를 옮기고, 장소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활절새벽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연합사역에 더 힘을 얻고 있다. 예년에 비해 무대설치 등 어려움이 몇배 컸으나 헌신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 6000여고, 사무총장 김재우 목사(성서교회)의 연합회 소식 보고, 증경총회장 이호성 목사(참사당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그리고 순복음중동교회 찬양대와 원미동교회(김영진 목사) 아웨이크 찬양팀과 디아코니아 중창단,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도미니&웹서바 중창단 등이 예배 찬양과 식전행사, 축하

CTS 6.25 고아 돌봄 사역 美선교사 한국 초청

CTS기독교TV 주최, 50여년 만에 국내서 제자 상봉



캔버르크 선교사 (82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한국전쟁 이후 고아 돌봄 사역에 헌신했던 미국 선교사 일행 40명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내로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선교사들의 회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CTS 창립 17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1972년까지 대구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아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특히 1953년 2월 설립한 직업학교를 통해 고아들에게 일반 지식과 다양한 직업 기술을 가르쳤다.

갈 곳 없는 고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 거처할 숙소를 제공한 이들 선교사들은 직업학교 봉사 외에도 의료 활동, 보육원 교사 훈련, 전쟁 과부에 봉제 기술을 가르치는 등 당시 재건 사업에 큰 보탬이 됐다.

이들 선교사들은 현재 70세 후반부터 90세 초반까지의 초고령으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을 떠난 후 수십년 만에 다시 방한하는 것으로,



사진 좌로부터 1. 로버트 거버선교사(76세) 2. 마블 브런크선교사(86세) 3. 밥 선교사(82세) 4. 존 주크 선교사(79세) 5. 베티 선교사(82세) 6. 보스 선교사(83세) 7. 루스카임 선교사(92세) 8. 로이스 밀러(로이 선교사) 75세

CTS 사전 취재 결과 저마다 노령임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1956년 첫 결혼 후 부부가 함께 3년간 한국에서 봉사했던 캔버르크 선교사(83세)와 아내 트와일라 선교사(81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사는 미국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 잘살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배웠다”면서 “젊은 시절 한국에서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1957년부터 15년간 직업학교 교장으로 봉사한 보스 선교사(83세)도 “한국에서 봉사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것은 인생을 변화시켰다”며

“지금도 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은 ▲한영 감사예배 ▲한국 제자 재상봉과 직업학교 동문회(대구, 춘천) ▲대구 경산 지역 사역지 방문 ▲대한민국 발전상 견학(서울) 등이며, CTS는 다큐멘터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이들의 방한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이번 초청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뒤늦게나마 잊혀질 뻔한 대한민국의 은인들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 목욕은 혈관을 젊게 한다! (3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1:9)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체로 진취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자기 관리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온갖 잘못된 건강속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간단한 습관이 건강의 주춧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따뜻한 물(40도)에 3분, 찬물(18도)에 1분 정도하는 온냉교대법을 2~3번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전통적 민간요법인 목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예로부터 목욕은 몸의 피로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피로회복제와 긴장완화제로써 널리 애용되어 왔다.

그리고 목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호흡을 촉진시켜준다. 특히 온냉교대법의 경우 모세혈관의 팽창과 수축을 극대화 시켜 정신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 혈관을 더욱 젊고 싱싱하게 해준다. 또한 땀을 충분히 흘리게 해줌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른바 운동효

과가 있다. 그러나 뜨거운 탕욕이나 사우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몸에 무리한 자극을 주어 체력소모와 부작용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온냉교대법과 증온장기법(40도에서 20분), 생활의 활력과 운동전 워밍업을 위해선 고온 단기욕(43도에서 3분), 식욕증진을 위해선 점증온욕법(20분에 걸쳐 38도에서 43도까지 점차로 올림)이 적합하다. 특히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신경성 위염, 긴장성 변비의 경우 증온장기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때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목욕탕에 가면 무리한 힘을 주어 땀을 뼉겨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피부부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고 목욕 후에 땀이 빠지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최근 첨단의학의 발달로 피부의 맨 바깥쪽에 붙어 있는 죽은 세포들로 알려진 각질세포 층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즉,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각질세포층은 피부습도의 유지와 피부를 통한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손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때밀이 수건이나 심지어는 “전문가”까지 동원하는 것은 피부건강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제이다.

신앙생활에도 정기적인 목욕

은 필요하다. 자백과 참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마비되고서야 어찌 생동감있는 영적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안정한 인간이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왜곡된 인격을 가진 이웃들과 무뎌지며 살아가는 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를 안짓는 것은 불가능하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키는 길은 항상 죄에 걸려 있다. 진흙바닥에 넘어진 어린이가 곧 바로 부모에게 달려가듯 죄를 깨달은 즉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잘 못했습니다”고 고백하는 탄력 있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증거가 아닐까. 고백은 우리의 일이고 용서와 깨끗 해 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죄 고백의 값이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가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라는 한 원로 목사의 설교가 컷가에 쟁쟁하다.



황성주 박사



담임 소진우 목사

라이프월드미션총재
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나 자신을 먼저 낮추고

성경: 창세기 33장1절-11절 찬송가 220장
본문을 보면 에서의 분노를 피해 20년이나 떨어져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른 아침에 담배하께 요단강을 건너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을 만난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대단한 존경의 표시로서 왕에게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성도간의 화해와 화목을 위해 나 자신을 먼저 낮추어 이웃을 왕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마음이 행동을 낳는다.

성경: 창세기 37장18절-28절 찬송가 91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꿈을 듣고부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더욱 더 커짐으로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이웃에게 베푸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가정에서 부터

성경: 창세기 34장1절-5절 찬송가 406장
본문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가

장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며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사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모습처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너무나 무감각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말씀은 나침반이다

성경: 창세기 34장6절-31절 찬송가 272장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디나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할례 의식 뒤에 따르는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34장6절-31절 찬송가 27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서원을 잊고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그의 서원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 영원한 기업

성경: 창세기 35장8절-15절 찬송가 200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을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땅'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은 의미가 매우 큼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땅의 기업을 넘어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가정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성경: 창세기 35장16절-29절 찬송가 432장
본문을 보면 르우벤이 빌하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여덟 집을 거느린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순수한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곳에서 도덕적 순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내게 주어진 반려자만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8. 아름다운 배려

성경: 창세기 36장1절-8절 찬송가 457장
본문을 보면 에서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주한 것은 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살고 있는 땅을 두고 야곱과 소유권 문제를 놓고 다투며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 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9.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성경: 창세기 36장9절-43절 찬송가 276장
본문을 에서의 계보 중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선민이었고 에돔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과는 상관없는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족속이 먼저 세상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불신자들 역시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때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가정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이후에 예비 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담담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 꿈꾸는 가정

성경: 창세기 37장1절-11절 찬송가 574장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신이 꾸는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사람은 불가능성을 바라보지만 낙관주의자는 불가능성 뒤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

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안된다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꿈꾸는 가정들이 되어 반드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1. 순종 그리고 사랑

성경: 창세기 37장12절-17절 찬송가 519장
본문을 보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형들에게 갔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 속에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역시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마음이 행동을 낳는다.

성경: 창세기 37장18절-28절 찬송가 91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꿈을 듣고부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더욱 더 커짐으로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

고 악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이웃에게 베푸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성경: 창세기 37장29절-236절 찬송가 432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야곱의 가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어진 물이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는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을 기억하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4.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 창세기 38장1절-11절 찬송가 345장
본문을 보면 아내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가족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야곱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배우자를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정(합동보수 망원)총회 교역자 하계수양회



총회장 황덕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보수 망원동측)총회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총회 교역자 하계수양회를 6월 4일(월) 오후2시부터 6일(수) 2박3일 동안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56~1(영인산 자연 휴양림)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총회"(마20:16)

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주요행사로는 영성부흥회 및 세미나에서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윤용교수,이광훈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또한 삼림욕 산소 체험과 천연 생태습지 관찰, 영인산 새벽 등산(금강), 체육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꿈을 이루고! 터를 닦으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 정연수 목사

정규예배
주일 전례예배(1부)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전례예배(2부) 오전 11시(래인보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래인보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동)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래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00(래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00(래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래인보우 비전홀)
세가지모임(주) 주일 오전 9:00(세가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032)552-5200 Fax. 552-52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부천대학
상동 초등학교
영광사 아파트
사방마을 아파트
송내역
백사문화센터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고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준공과 위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만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영원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청년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 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동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광고회 대표전화: 031)384-7408 부목사실: 384-9744, 385-8933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남현교회 한 영혼 사랑! 효 축제 열어

‘환상적인 부채춤’ ‘색소폰 연주와 흥겨운 민요 가락’, ‘화려한 복춤’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시름을 달래드리며 함박웃음이 교회당에 울려 퍼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는 지난 11일 구로구 소재 본당 비전홀 1층에서 관내 지역 어르신 초청,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다.

한 영혼 사랑 효 축제는 남현교회 주관, 구로구청 후원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부채춤 비롯해, 크로마하프 연주, 전국명창대회 대상을 차지한 신재영명창의 흥겨운 민요 공연과 함께 남현교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

과 함께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받았으며, 남현교회가 준비한 푸짐한 오찬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효 잔치가 되었다.

담임 이춘복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하며 오시는 어르신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교회가 앞으로로도 어르신들을 자주 모시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다”며 크게 환영하면서 위로했다.

이날 효 잔치에 참석한 황순복 할머니는 “적절한 시기 교회가 나이 많은 노인네를 불러 위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비록 몸은 늙어 힘이

들지만 웃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다면서 ‘함박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현교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효 잔치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성 구로구청장도 “재미있고 풍성한 잔치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어르신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기도 했다.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효잔치를 열고 있는 남현교회는 교회의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전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로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사역 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복음전도에도 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는 독고노인들과 청소년 가장 등을 돌아보며 장학금을 전달하며, 명절 때나 김장철이면 김장과 떡을 해서 돌리기도 한다. 또한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의(경목)회장을 맡고 있다.



창조의 앞자리 청지기 “송광우 장로”

송광우 장로는 나귀처럼 주님의 종을 귀하게 모실 것을 다짐

사계절을 통해서 VIP로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이 있다. 창조의 앞자리 청지기 사역에 송광우 장로, 자신은 나타나되어 주의 종들을 섬기겠다고 말한다. 나타나 예수님을 등에 태웠듯이... 송 장로는 소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창조의 앞자리 사역은, 2008년 동해안 아파트라는 작은 카페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기로 수도세로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카페였습니다.

얼마 만에 많은 회원이 확보되었고, 하나의 아파트로는 감당이 안 되어 주변의 펜션을 20% 할인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하게 되었고 카페회원이 1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펜션주인이 저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에서 준비된 말씀이 “창조의 앞자리에서 말씀의 앞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겼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빈 객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섬김의 도구로 채우며 예수님께 쓰임 받는 나귀처럼 주님의 종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분 두 분이 취지를 이해하고 사용하시며 많은 분에게 소문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영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약하다면 빌려서라도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주님의 종에게 제공하자고 이런 마음이 실현되어 직영시설과 제휴시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직영 시설은 제가 추가의 비용 부담이 없는 시설이고 제휴 시설은 저의 비용부담이 있는 시설입니다만 염려 걱정보다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7,8만여 하나님께의 사람들을 모두가 제가 운영하는 객실을 하나님께의 사역을 위한 충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객실 // - 목회자님 가족 객실 섬김, - 선교사님 충전을 위한 객실 섬김 - 부흥회 개최교회 부흥사님 객실 섬김,

직영시설/ 하조대소풍 (직영)

창조의 앞자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 시설은 제가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객실 내 주방시설이 없는 객실입니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비큐 + 황태해장국 조식이 마련됩니다.

· 위치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46 하조대해수욕장 앞
· 홈페이지 : www.sopoongps.co.kr

알프스클로빌 (직영)

창조의 앞자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 이 시설은 제가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객실 내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비큐 + 황태해장국 조식이 마련됩니다.

· 위치 : 고성군 간성읍 출리 22-3
· 홈페이지 : www.alpsps.co.kr

평창 올림피아드 (직영)

2018년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알펜시아 앞에 소재한 정상급 호텔, 리조트 호텔객실 50실 25평 이상 콘도실 25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 위치 : 대관령면 차항리 266-14
· 홈페이지 : http://www.olympiare.sort.co.kr 제휴시설

대포항 동해콘도 (제휴)

대포항 언덕에 위치한 최고의 전망을 보유한 콘도, 60실 전실 오션뷰, 25평으로 양실 45, 한실 15 기준인원 4명, 최대하용인원 6명, 양실 : 침실1, 욕실1, 주방, 샤워실, 한실 : 욕실 2실, 주방, 샤워실, 부대시설 : 세미나실,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 위치 : 속초시 대포동 790-4
· 홈페이지 : www.donghaecondo.co.kr

낙산비치호텔 (제휴)

관동8경중 하나인 낙산 의상대

가 호텔의 정원앞에 위치한 최고의 절경에 위치한 호텔. 오션뷰 60실, 마운틴뷰 60실 객실 기준 인원 2명, 최대하용인원 4명 부대 시설 : 해수사우나, 커피숍, 식당, 세미나실, 편의점, 위치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3-2
· 홈페이지 : www.naksanbeach.co.kr

동역 목사님은 1. 창조의 앞자리 사역을 주변의 분들에게 소개하고, 2. 휴식과 충전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의 앞자리 카페 추천, 소개”란에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해 주시면/ 창조의 앞자리 스태프 추천해 주신 분께 전화를 드리고 창조의 앞자리 휴식과 안식을 통해 사역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창조의 앞자리 청지기
· 카페 : http://cafe.daum.net/hands-of-love
· 연락처 : 033-632-1253

대한예수교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2012년 1월 1일 개교
1. 한빛교회 성도들 환영
2. 온전하고 전례가 아름다운 교회
3.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4. 믿음이 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담임 이재갈 목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012 목회 지침
내 정의를 행하라 (사45:2)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영혼구원의 정의를 행하라
성경의 정의를 행하라
축복의 정의를 행하라
부흥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희재
전도사 : 임성환, 권영희, 박영준
법률상담 : 김진영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교회(살전 3:8)

인간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담임 유영섭 목사

주요 예배
· 주일 낮 예배 : 11:00 (성도 100여명)
·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 주일전야제 : 오후 7:30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수요제례 : 오후 8시
· 수요일기도회 : 오후 8시
· 주일 부흥 : 유서익(장로) (매주 1회)
· 청소년부 : 청소년부(매주 1회)
· 아동부 : 아동부(매주 1회)
· 영아부 : 영아부(매주 1회)
· 성령강령 : 아동부(매주 1회)
· 새가족 : 새가족(매주 1회)
· 목회자 : 목회자(매주 1회)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성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대한예수교 주사랑교회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학생회	토요일 5시
수요 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요일 6시
새벽 예배	새벽 5시	아침기도구예배	금요일 11시
금요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 H.P :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과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당목사 : 정대성 선교사
부목사 : 임현미 선교사
장로 :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 전은혜 선교사, 한미애 선교사
조혜선 선교사, 황현미 선교사
전도사 :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 박시은 박사내 정은주



예배-시간
주일예배 :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 주일오전 10:00
주일저녁예배 :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 주일오후 8:00
성령강령 : 주일오후 8:00
목회자 : 주일오후 8:00
목회자 : 주일오후 8:00
목회자 : 주일오후 8:00

506-800 광주광역시 광안구 도산동 773-3호
☎ 010-4932-7277 070-7443-7277

통일교, ‘2012피스컵 수원’ 축구대회 관람불가



이영선 목사
통일교대책협
사무총장

통일교 남자축구대회인 피스컵 축구대회는 200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흡수년으로 격년제로 열렸다. 1~3회대회까지 한국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대회를 하였으나 4회인 2009년부터는 피스컵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개최 후 2011년에는 해외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2012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2012년 개최되는 피스컵은 12팀에서 4팀으로 출전 팀이 축소되었다.

피스컵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는 2012년 2월 22일(수) 수원시청에서 박상권 조직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문창석 KBSN 부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는 수원에서 열리는

피스컵(통일교)축구대회에 기독교인들 경계하자

사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졌다.

주최/주관/후원은(재)선문평화축구재단/수원시/피스컵조직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피스컵은 2012년 7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4일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을 포함해 성남 일화(한국), 선덜랜드AFC(영국), 함부르크SV(독일), FC 흐로닝언(네덜란드) 등 4개팀이 참가하며, 대회 방식은 A,B조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각 조 승리팀이 결승전, 패배팀이 3.4위전 경기를 하게 된다.

피스컵 경기는 7월 19일(목) 성남일화와 선덜랜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일(금) 함부르크와 흐로닝언의 대결이 있다. 22일에는 3-4위전과 결승전이 각각 치러진다.

총상금은 250만달러이며 1위는 150만달러, 2위는 70만달러, 3위는 30만달러이며 한국의 성남일화, 손흥민이 속한 함부르크 SV, 지동원이 속한 선덜랜드 AFC, 석현준이 속한 흐로닝언팀으로 참가팀으로 확정되었다.

피스컵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선수가 속한 거의 모든 클럽과 접촉했다”면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개최하기위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 3개 팀을 초대했다고 통일교 측이 밝혔다.

‘2012 피스컵 수원’ 열리버드 티켓 예매는 피스컵조직위원회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kr)가 진행하며, 인터넷을 통한 티켓 예매오픈은 2012년 5월 15일(화) 오후 2시부터 예매를 시

작한다. 1차 예매는 15일부터 20일, 2차 예매는 5월 22일, 3차 예매는 5월 29일 진행되며, 정식 예매 오픈은 6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수원에서 열리는 피스컵 축구대회를 통해 인류 화합을 이루어내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위장하려는 통일교 측의 의지가 은밀히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선 목사는 이어서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7월에 있을 ‘2012 피스컵 수원’ 축구대회를 인터넷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여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은 피스컵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예매 후 광고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후원권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연락처: TEL] 02-744-2422/ H․P 018-214-7720

박지원, 이석기 등 제명에 앞장서야

3월 10일 심야에 민주통합당 한명숙과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2012년 총선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6.15와 10.4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와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 등 야권연대합의문에 서명 100%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합의하였다.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6석을 포함 13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으나 이정희의 여론조작부정선거에 이어 동부연합 이석기가 비례대표순위결정에 사상 유례가 없는 <100% 여론조작>을 무기로 총체적부정선거를 자행 주사파를 대거 원내에 진출시킨 사실이 자체조사에 의해 폭로되면서 통합진보당이 일대 자증지란에 빠지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동부연합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총체적부정선거 비리로 인해 초래 된 자멸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2일 개최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가 동원한(한대련?)폭력배의 기습폭력으로 조준호 공동대표가 목베가 부러져 중태에 빠지는 등, 일대 참사가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연대책임론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만 돼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된 내용의 합의를 가지고 4.11총선연대결과, 비록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주어 과반의석은 빼앗겼지만 민주당 127석 평년자에 통합진보당 13석 대공작을 거두면서 ‘발갱이(진보)전성시대’라도 맞은 양 크게 고무되었다가 통진당 부정선거 불뚝이 민주당으로 튀게 되자 박지원이 다급해 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이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통합진보당과 야권 단일화로 연합·연대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합으로서 소나기나 피하고 보겠다는 잔피를 부렸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합의한 <새로운 민주공화국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합의를 했다면, 민주당은 수권정당이라기보다 지역주의에 함몰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선 역시 ‘486주사파’들이 조직적으로 자행 한 부정선거결과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통진당 이정희와 민주당 한명숙이 합의한 새로운 공화국건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타도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반역적 주장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철폐는 물론, 6.15와 10.4 실천을 담보하는 입법조치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 한 <연방제적화통일>약속을 실현하지는 다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부연합 주사파와

간첩전력자 제명이

19대 국회개원의 전제

박지원이 한명숙과 이정희 합의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건설>과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적화통일(헌법)제정>등 적화통일 로드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무능력자이다. 만약 이런 끔찍한 합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침묵했다면 박지원은 한명숙 보다 더한 <악질적인 배후이거나 공범>이다.

이제 박지원과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에 침투, 국회에 진출한 동부연합 주사파와 간첩경력자들에게 대한 국회의원제명에 앞장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본다.

만약 박지원이 민주당 및 통합진보당 내부, 주사파 및 간첩출신자 출당과 제명에 앞장서는 것을 기피한다면, 민주당 역시 통합진보당 못잖게 대한민국을 타도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건설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 한 반역집단이라는 국민적 오해와 의구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 날 수가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의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으며, 박지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과 회의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칼럼리스트 백승묵 대기자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감시 시스템

교회언론회 논평내고, 감시관 파견 학교 총체적 파행을 촉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방 패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부정선거의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마다 파견하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학생인권옹호관’이지, 내용면으로는 학교에 보내는 감시관의 역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수집하는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대외적 명분은 학교의 인권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을 통하여 스승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격려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와 밀접한 관계인 인권단체 출신 사람들이 옹호관이 된다면, 단지 학교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중립성을 지킬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월적인 권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파탄을 일으켰던 인물

이다. 당시 곽노현 씨는 정부와 국경원에 대한 수사권을 인권단체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찰과 감시가 학교에서 일상적, 공식적으로 행해진다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독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지난 2010년 5월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신분일 때에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과 학교(기독교) 규제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서약을 했었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와 서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시행을 강행했고 그 후,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곽 교육감을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실시하면 기타 지역도 따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마치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에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했던 정치세력들이 내세운 명분은 ‘교육시스템은 정치’이기 때문

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지지자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이는 ‘과거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 북한에서는 젊은 김일성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기독교 정치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고, 북한을 공산화할 때에도 학교와 학생부터 장악하고 고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포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장악한 성공사례가 있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는 필연적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데도 곽 교육감이 비난을 초래할 독재적 시스템을 직접 추진․강행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발상을 내놓고, 시민 발의안까지 추진한 전교조라는 정치세력이 없었다면 교육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제8회 목회자 자녀 및 청소년 성령 캠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 대회교문 : 임철환 목사(증경교회장)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
- 대회장 :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 교회)
- 준비 위원장 :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 교회)
- 진행위원장 : 손백두 목사 (사랑의 빙 교회)
- 대회 총무 : 최재필 목사 (행복을 주는 교회)

- 일시 : 2012.8.1(수) - 4(토) (pm2시입소) 3박4일
- 장소 : 수동기도원(경기도 남양주시)
- 강사 : 청소년 특수 사역자(왕성한 교회)팀
- 주최 : 웨신총회 중앙노회
- 후원 : 웨신총회, 지저스타임즈, 웨신총회 신학교
- 참가비 : 3만 5천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임재 경험은 그 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여기 목회자자녀들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성령 임재 캠프를 준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갈 확실한 비전을 체험하고, 지켜가고, 성장시켜 가길 원합니다. *소수 정예 인원만 받습니다.(200명)

문의 사항 : 손백두 목사 (010-4761-1020)

한기총, 임시총서 정관개정, 한교연 가담자 제명 전원찬성

조갑제 대표 통진당은 중북좌파와 친북이요, 공산주의자라 맹비난
홍재철 대표회장, 6·25국민대회에 각 교단들 적극참여를 당부



홍재철 목사
대표회장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 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회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에 앞서 엄정목 공동회장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황덕광 공동회장의 기도, 임종수 총무 협의 회장이 성경봉독(마 20:1~16)을, 이만신 목사는 '열한 시에 온 사람(마 20:1-16)'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정관개정안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

이날 총대들은 제15조 실행위원회 직무에 대해, 3항 기존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를 '회원 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으로 개정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운영세칙에 있어서도 '회원권 상실 및 제명은 임원회의 결의와 실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제1장 3조 5항 수정안을 추진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가담 교단에 대한 제명 안을 보고하고, 제명된 교단은 한영·개혁선교이며, 개인의 경우 김요셉(예장대신)·조성기(통합)·유종현(백석) 목사 등 9명이다.

동시에 행정보류 교단들에 대해 총대들은 제명 의견을 밝혔으나 홍재철 대표회장은 "돌아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해 보류했다. 다만 개혁총연과 한교연 관련 불법행위는 질서확립대책위원회에서 고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선교회, 예장예을, 예장 합동개혁 등 3개 교단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실사 결과 승인이 하려되었다.

이날 홍재철 대표회장은 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에 큰 의욕을 갖고, 지난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과 가진 세 차례 예비 모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각 교단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게다가 홍 대표회장은 "기존 대 형교회 1-2곳에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있는 이때 3만여 명이 참석할



국민대회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피종진 목사 6월 국내·외 성회 일정

1(금) 오전	서울 한우리교회(백정호 목사) 비전센터, 방사광선교회(대회장 전대박 전도사)
3(주일) 오후	대전 주안성로교회(전정호 목사) ☎(042)531-7216
4(월)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한국천안예술신학교 (총장 강태원 목사, 학장 강수미 박사)
4(월)~ 6(수)	광주 살롱기도원(원장 고정일 목사) ☎(062)432-6392
6(수) 저녁	광주 주 기림교회(김진영 목사) ☎ 010-3672-5402
10(주)~13(수)	울산 병영교회(유석근 목사) ☎ 010-3844-6189
11(월) 오후	고양 벽제교회(허필호 목사) ☎ 010-3004-0675
15(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 (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17(주일) 오후	화성 봉담중앙교회(장철수 목사) ☎(031)227-0241
19(화) 오후	서울 새성명복교회(박종일 목사) ☎(02)3142-5336
주최: 민족복음화중앙운동본부(총재 이능규 목사)	
22(금)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23(토) 오전	실천목회연구원 ☎(02)2067-4511
23(토) 오후	서울 성락교회(원로 박태희 목사, 담임 지형은 목사) ☎(02)467-8105
23(토)~25(월)	평양봉수교회 남북평화통일기도회, 주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061)278-1700
25(월)~27(수)	거제 양곡기도원(원장 이윤수 목사) ☎(055)688-4215
29(금)~7.1(주)	제171차 해외성회(171st Overseas Assembly) 미국(U.S.A) 올라비스타 한인장로교회(이종우 목사) ☎(619)730-8313

예총연 단합된 모습으로 춘계수련회 성료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교단 간 화합과 협력교류로 교회 제모습찾기에 역점>을



유영섭 목사
예총연 대표회장

(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예총연,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춘계수련회 및 신학세미나를 지난 3~4일(1박 2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가

졌으며, 상호 회원교단 간 협력교류와 교회의 제모습찾기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주제로 수련회를 갖고 참석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연합회, 회원일치의 연합회,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연합회의 가치를 내걸고, '순수'와 '열정'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현실을 넘어 밝은 미래를 향해 독수리처럼 힘 있게 비상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 능력 받고 충전된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것

을 다짐하는 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예총연 임원들과 참석자들은 뜻을 모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목회자, 예총연과 소속 총회, 단체, 교회 등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예총연은 2005년 7월 11일에 창립한 연륜이 짧은 기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지향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열정만큼은 어디에 뒤지지 않을 만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마다 발전할 것을 거듭하고 있는 예총연은 설립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학협의회와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두 날개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 연합회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회장은 예총연은 큰 틀인 회원 교단 간 협력교류와 교회의 제 모습을 찾는

사업뿐 아니라, 산하 교단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목회자 신학교육 및 연수를 위한 사업,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 사회단체 등록 관리에 관한 일, 회원 교단의 순결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 교계와 사회적으로 교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사이버와 이단의 교단침투를 공동으로 대처하며 신앙의 증진과 개혁, 복음의 전파를 위한 교육 발간사업 일체에 관한 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반정웅 사무총장은 "각 교단교류를 비롯해, 교회권익 보호와 교회양극화 해소, 교회본질 회복과 정체성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리(엡4:3)"란 말씀대로 예총연의 모든 교단과 단체가 발전하는데 있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신대학교 개교 111주년 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사단충신대학교가 지난 5월18일(금)오전11시50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소재 개교 111주년을 맞아 충신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일웅 총장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정승원 교목실장의 기도, 교회음악과 생들의 찬양, 전 재단이사장 김동원 목사(증경총회장)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개교기념 양상을 관람하고, 초청자 소개와 외빈인사가 있었으며, 운영이사장 남태섭 목

사,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충신대학교 정일웅 총장의 공로패 증정과 근속표창장 등이 전달되었다.

이어서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축사, 운영이사장 남태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완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대명집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다시 불어와 우리민족교회들이 영적대각성과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이 강산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홍등록 www.kcnn.co.kr
(02) 2203-9811 / (02) 2203-9822

한국교회여! 성령의 회오리바람 다시 불어라!

한국교회 영적대각성 부흥을 위한

성령대명회!

제1차 목회자 중심의 전문 컨퍼런스입니다.(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5. 28(월) ~ 31(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2차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오후 7시 30분/강사진은 다름니다)
일시) 2012. 6.18(월) ~ 22(금) 저녁 5일간 장소) 서울 나들목교회

제3차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집회입니다.(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7. 2(월) ~ 5(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4차 신학대학원생들과 청년대학생들을 위하여 (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8. 27(월) ~ 30(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한인원 2,000명 비 용 1인 10만원 (부부 18만원 / 선착순 접수마감)
온 라 인 국민은행 825301-04-036708 (예금주: 한국강해설교학교)
등록방법 홈(www.kcnn.co.kr)에 들어오셔서 일일별 / 차수별로 등록 후 인터넷 입금
숙식일제, 간식, 교재 제공
※ 제2차 평신도 저녁집회: 참가비 7만원 (숙식없음) / 제한인원: 700명
주최주관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 크리스찬뉴스위크신문사, Knewstv

■ <저녁집회> 주 제 : 우리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 월요일 저녁 : 김성환목사 (명성교회 개척자 / 당회장)
· 화요일 저녁 : 정필도목사 (수영로교회 개척자 / 원로목사)
· 수요일 저녁 : 김인중목사 (안산동산교회 개척자 / 당회장)

■ 주 제 : 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 - 성령목회의 그 이유
· 개회예배 : 월요일 (PM 14시) 박종순목사 (충신교회 원로목사)
· 폐회예배 : 목요일 (AM 12시) 김자연목사 (양성교회 당회장)
· 주제강의 : 월요일 (AM / PM) 전광훈목사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 <특별강좌> 주 제 : 내가 체험한 성령의 일하심 '사역' (1차, 3차 강사진)
· 화요일 : 장경동목사 (대전중문교회 당회장) / 권태진목사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 수요일 : 고명진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당회장) / 이윤재목사 (분당한신교회 당회장)
· 목요일 : 정주재목사 (향상교회 당회장) /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 <새벽집회> 주 제 :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 '기적' (1차, 3차 강사진)
· 화요일 : 한태수목사 (은평성결교회 당회장) / 정성진목사 (거북한빛성결교회 당회장)
· 수요일 : 양병희목사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 박원영목사 (서울나들목교회 당회장)
· 목요일 : 이승희목사 (대구반야월교회 당회장) / 최이우목사 (종교감리교회 당회장)

※ 영적대각성집회 준비위원회-12개 교단별 위원장

<합동> 김인중목사 (안산동산교회 당회장)	<통합> 정성진목사 (거북한빛성결교회 당회장)
<고신> 정주재목사 (향상교회 당회장)	<감리> 최이우목사 (종교감리교회 당회장)
<침례> 장경동목사 (대전중문교회 당회장)	<성결> 한태수목사 (은평성결교회 당회장)
<기장> 이윤재목사 (분당한신교회 당회장)	<합신> 권태진목사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순복> 이재현목사 (수원순복음교회 당회장)	<대신> 박종순목사 (평촌새중앙교회 당회장)
<백석> 양병희목사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초교> 백광진목사 (잠실동교회 당회장)

■ 저녁 주강사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부산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특별초청강사 (낮,새벽) - 차수별로 강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



양성교회
김자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향상교회
정주재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거북한빛성결교회
정성진 목사



반야월교회
한태수 목사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분당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